

# '전주미술: 필묵으로 이어진 100년'

전주시립미술관 · 전북도립미술관 협력 전시 개최... 8월 9일까지 작가 34명 작품 46점 전시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타고난 예술혼을 꽃피운 한국을 대표하는 서화 예술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전시가 막을 올렸다.

전주시는 7월 10일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팔복예술공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소장품을 활용한 협력 전시 '전주미술: 필묵筆墨으로 이어진 100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의 '찾아가는 미술관' 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것으로, 도립미술관 소장품과 전주미술사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근현대 전주를 중심으로 형성·발전해 온 전북 서화예술의 흐름을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전주를 주요 활동 무대로 삼았던 대표 작가 34명의 작품 46점이 선보인다.

전시 참여 작가는 근대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북 미술사를 대표하는 인물들로, 전통 서화의 맥을 이어온 이정직을 비롯해 채용신, 송성용, 이응노, 송수남 등 당대 뛰어난 예술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은 작가들의 작품이 관람객을 만난다.

이번 전시는 모두 3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1부와 2부에서는 전북 지역에서 형성된 필묵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타고난 예술혼을 꽃피운 한국을 대표하는 서화 예술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전시가 막을 올렸다.

전통이 어떻게 뿌리내리고 확산됐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전시와 교육, 예술 교류 활동을 통해 서화 문화가 계승되고 발전해 온 과정을 작품과 함께 소개한다.

3부에서는 광복 이후 전통 필묵 정신이 현대적 조형 감각과 만나 새롭게 변화한 모습을 조명한다. 한국화의 다양한 흐름 속에서 전북 작가들이 전통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했는지를 보여준다.

관객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지난 100년 동

안 이어져 온 전북 서화 예술의 깊은 역사와 시대 변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진 창작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운동목 전주시 부시장은 "선대 예술가들이 남긴 창작의 흔적을 따라가며 서화 작품 속에 담긴 문인정신과 깊은 뜻을 느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주의 문화예술 자산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 예술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진안역사박물관이 7월 10일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 새만금고속도로 김제휴게소(새만금방향) 2층 전망대 전시 공간에서 진안의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진안고원과 마이산을 품은 진안의 이야기, 길 위에서 만나다' 전시를 개최한다.

## 휴게소서 만나는 진안 역사문화 전시

진안역사박물관, 8월 13일까지 김제휴게소서 '박물관 in 휴게소' 개최

진안역사박물관이 7월 10일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 새만금고속도로 김제휴게소(새만금방향) 2층 전망대 전시 공간에서 진안의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진안고원과 마이산을 품은 진안의 이야기, 길 위에서 만나다' 전시를 개최한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사)전북박물관미술관협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과 9개 지역박물관이 함께하는 '박물관 in 휴게소' 전시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알리고, 휴게소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진안의 고대문화를 보여주는 가야 토기와 전북 무형유산 진안고원

형용기장 보유자가 제작한 공기를 통해 지역의 고대문화 양상과 무형유산 가치를 소개한다. 아울러 국가 명승 마이산과 진안 용담댐 관련 사진·기록물 등을 통해 진안의 자연과 그 변천 모습, 역사성을 함께 알린다.

전시와 함께 방문 인증 행사를 통한 기념품 증정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김제휴게소에서 전시를 관람한 후 인증사진을 촬영해 진안역사박물관 안내데스크에 제시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또한 진안역사박물관을 방문한 후 인증사진을 촬영한 관람객이 지정된 전북지역 고속도로 휴게소의 지정매장을 방문하면 음료 1잔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문화시설 이용 공정성 · 투명성 높인다

남원시, 남원아트센터 · 예가람문화공간 문화시설 사용료 기준 적용

남원시가 7월부터 남원아트센터와 예가람문화공간에 문화시설 사용료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남원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반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해 문화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용료는 시설 관리에 부과되는 요금이라 전시, 교육, 회의, 강좌, 창작활동 등 문화예술행사를 위해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적용되는 대관료다.

남원아트센터는 전시공간과 다목적실이 적용 대상이다. 1층 로비 전시공간은 전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하루 5만 원, 행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하루 7만 원이고, 지하 전시공간은 규모에 따라 하루 2만 원부터 3만 원까지 부과된다. 다



목적실은 반일 1만 원, 전일 1만 5천 원이다. 예가람 문화공간은 전시공간과 창작공간에 사용료가 적용된다. 전시공간은 총별 하루 2만 원, 창작공간은 1개월 기준 10만 원이다. 감면 기준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한국예총 남원시지부가 주최하는 비영리 순수 문화예술행사 등은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문화관광재단, 지역상생 · 문화동행 페스타 우수사례 공모 '지역문화진흥원장상' 수상

고창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 '2026 지역상생 · 문화동행 페스타 지역문화 우수사례 공모' 심사에서 '지역문화진흥원장상'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광역·기초 문화재단이 참여한 이번 공모에서 재단은 '고창 전통예술체험마을' 운영 사례로 사업기획의 독창성, 성과, 지속가능성, 지역문화 기여도를 인정받았다.

고창 전통예술체험마을은 개관 후 128일간 총 98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누적 방문객 3만여 명, 체험 프로그램 참여 2500명을 기록했다.

재단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전통예술체험마을을 지역민·창작자가 함께 만드는 개방형 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보 · 보물 29개소로 늘어난 전북, 목조문화유산 화재대응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진형민)는 최근 도내 목조문화유산이 국보와 보물로 지정됨에 따라 화재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남원 광한루가 지난 7월 1일 국보로 승격되고, 고창 선운사 영산전, 부안 내소사 살선당과 요사, 익산 승림사 정혜원 등 3개소가 7월 7일 보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유산의 위상과 보존가치가 걸맞은 현장대응체계를 재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내 목조문화유산은 국보 3개소, 보물 26개소 등 총 29개소로 늘었다.

목조문화유산은 건축물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가 빠르고, 진압 과정에서도 원형 보존과 훼손 최소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사찰 문화유산은 산불 확산 위험까지 동반해 사전 대응계획과 반복 훈련의 중요성이 크다.

전북소방본부는 관할 소방서를 중심으로 7월 중 현지직능훈련을 실시해 출동로, 소방용수, 초기 진압 여건, 문화유산 보호 절차 등을 현

장에서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하반기에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합동소방훈련을 추진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고창 선운사 영산전, 부안 내소사 살선당과 요사, 익산 승림사 정혜원 등 산림과 인접한 사찰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산불 확산 방어 대책을 중점 보강한다.

실제로 익산 승림사 정혜원은 1589년 산불로, 고창 선운사 영산전은 1751년 화재로 소실된 이력이 있다. 이에 산불 방어선 구축, 목조 본체 이격방어, 유물 소산 우선순위 등을 매뉴얼에 반영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진형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국보와 보물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소중한 국가유산"이라며 "목조문화유산은 화재에 취약한 만큼 사전 대응계획을 정교화하고 반복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여, 도내 중요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대한민국이 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 한국전력은 전기에 집중합니다

시 강국의 꿈,  
에너지고속도로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전기가 필요한 시시대  
한국전력은 최첨단 전력기술 기반의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더 많은 에너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달리게 하겠습니다.

## 지금, 전력이 전략입니다

한국전력

에너지고속도로란?  
대규모 전력을 전송하기 위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첨단산업 등 전력수요자를 잇는 국가전략망 구축사업